

오늘 오전 3:45

상록빌 101호에서 사무실을 열면 어떨까?

용차이, 나는 꽤 괜찮은 생각이라고 봐. 그런데 그냥 '내 사무실을 상록빌 101호로 옮긴다'는 의미라면 조금 아깝고, **OnePunchCamp가 실제 사람을 만나는 작은 현장**으로 쓰면 얘기가 달라져.

상록빌 101호는 우리가 얼마 전 숙박업 가능성을 살펴보던 바로 그 근린생활시설이잖아. 숙박업으로 바꾸려면 용도변경부터 여러 장애물이 있었지만, **사무실은 현재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점과 훨씬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세부 용도가 사무소 허용 범위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업종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지금 OnePunchCamp의 국면하고도 묘하게 맞아. 우리는 계속 **"실제 한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 우리의 방식이 작동하는가"**를 보고 있었잖아. 첫 사람이 꼭 생면부지일 필요도 없고, 실제 문제를 들고 들어와 시간과 노력을 걸어보는 사람이면 된다는 데까지 왔고.

그래서 나는 이런 그림이 먼저 떠올라.

상록빌 101호 = 사무실이면서 작은 실험 현장.

사람이 찾아온다 → 앉아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한다 → AI와 같이 들여다본다 → 필요하면 워크시트 19쪽 가운데 필요한 것을 꺼낸다 → 자기 iBooth에서 뭔가를 만들어보기 시작한다 → 그 과정 자체가 운영일지의 실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 동작50+와도 역할이 겹치지 않아. 동작50+가 외부 사람과 만나는 **공개적인 오프라인 접점**이라면, 상록빌 101호는 용차이가 평소 일하면서 **실제 한 사람과 깊게 작업할 수 있는 작은 작업실**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더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모집하지 않고 **"누가 어떤 경로로 문을 두드리는가"까지 데이터로 보자**고 했다는 점이야. 상록빌에 사무실이 생기면 그 '문'이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공간에도 하나 생기는 셈이지.

다만 나는 **지금부터 인테리어하고 간판 달고 'OnePunchCamp 센터'를 만들자는 생각**에는 반대야. ㅋㅎ.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지.

책상 하나, 사람 둘셋 앉을 자리, 인터넷, 모니터 정도. **먼저 용차이의 사무실로 쓰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는 것.** 발생하고 나서 이름을 붙이면 돼.

어쩌면 용차이가 노량진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공간을 먼저 거창하게 정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101호를 써보는 것 자체가 다음 운영 실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한번 현실적으로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 지난번 보여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101호에서 어떤 종류의 사무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간판·방문객을 받는 형태까지 가능한지**를 동작구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금방 윤곽이 나올 거야. 원하면 내가 그 부분부터 다시 제대로 조사해볼게.

응, 여긴 이미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실로 쓰던 자리야. 12년 사업하던 그 사람이 얼마전에 사업이 안된다고 나갔어. 지금은 비어있고. 마땅히 누가 들어올 거 같지도 않아서, 용도변경을 함 알아봤던 거고. 문제는 내가 아내로부터 신뢰를 별 얻질 못하고 있어서, 막상 내 사무실로 쓴다는 얘길 꺼내는건 좀 그래~ 다만, 비어있으니, 내가 가서 쓰면 되는 걸테고. 사실상 점유해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미 세무서엔 내 사무실들이 모두 상록빌 501호로 되어있어. 거기서 101호 사실상 이전하는 셈이지.

아, 이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네, 용차이. **‘사무실을 새로 얻는다’가 아니군.** 이미 가족 소유의 101호가 비어 있고, 12년 동안 실제 디자인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인데 임차인이 나간 상태. 그러니 용차이가 별도의 투자나 임대계약을 벌이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에** 가깝네.

그래서 아내에게 굳이 지금부터 “101호를 내 사무실로 쓰겠다”라고 선언하고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 아내와의 관계 문제를 떠나서도, 아직 **101호가 무엇이 될지 용차이 자신도 모르잖아.**

노트북 들고 내려가서(?) 책상 하나 잡고 그냥 일해보면 되지. 며칠 써보고,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AI와 작업도 해보고. 좋으면 계속 쓰고 아니면 그만이고. 새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세무서상 사업장 이전과 실제 작업공간 이동은 별개의 문제야.** 현재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모두 501호라면, 당장 101호에서 노트북 펴고 일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자등록 주소를 101호로 바꿔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 반대로 101호가 실질적인 사업장으로 굳어지고 외부에 주소를 표시하거나 고객을 상시 받는 단계가 되면 그때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종된 사업장 문제 등을 세무서에 확인하면 되고.

오히려 나는 주소부터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은 그냥 빈 101호를 용차이가 점유해서 써보는 단계.

이게 묘하게 우리 운영 방식하고도 닮았어. 먼저 이름 붙이고 조직 만들고 간판 다는 게 아니라,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

그리고 몇 주 지나서 용차이가 어느 날 나한테,

“지니, 이상하다. 여기서 사람을 세 명이나 만났어.”

라고 한다면 그때 101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돼. ^^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해. **‘가서 사용하는 것’과 가족 내부에서 사용 권한이 합의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야.** 소유자가 큰아이라면,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가족 사이에서 나중에 “누가 허락했느냐”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소유자의 동의 정도는 있는 편이 좋겠어.

그 조건만 괜찮다면, 지금 용차이가 말한 상황에서는 **101호를 당장 ‘OnePunchCamp 사무실’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용차이가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실험** 같아.

지니가 왜 iBooth Lab 사무실이라 하지 않고, OnePunchCamp 사무실이라 하지?

맞아. **내가 잘못 짚었어.** 101호를 굳이 프로젝트의 어떤 공간으로 부른다면 **OnePunchCamp 사무실이 아니라 iBooth Lab 사무실이 맞지.**

우리 구조에서 **OnePunchCamp**는 대표 채널·대표 전시장이야. 실제 운영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쪽이지. 반면 **iBooth Lab**은 용차이가 연구하고, AI와 작업하고, 현장에서 생긴 것을 들여다보며 다음 문법을 발견하는 곳이고.

그러니 지금 101호의 성격은 훨씬 자연스럽게 이거야.

상록빌 101호 → 용차이의 작업실 → 사실상 iBooth Lab의 오프라인 연구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굳이 처음부터 간판에 *iBooth Lab*이라고 써붙일 필요조차 없다는 거야. 용차이가 그냥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AI와 조사하고 사람도 만나고 CNS도 만들고 운영일지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 **iBooth Lab**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아까 내가 OnePunchCamp라고 한 건 둘의 역할을 섞어버린 거야. 그건 분명 내 실수야.
^^

그냥 날 만나려면,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7길 64 상록빌딩 101호로 오세요. 하면 되는 건가? 그럼, 그게 자연스레 iBooth Lab이 되는 걸까? 그리고 거기 운영자인 내가 손님을 받는 게 되는 거고. 손님은 거기서 각종 자신의 포부를 내게 털어놓고 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응. 그렇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게 iBooth Lab이 ‘생기는’ 것 같아. 용차이가 지금 말한 순서가 특히 우리답고.

“iBooth Lab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나 만나려면 여기로 오세요.”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7길 64 상록빌딩 101호.

그리고 용차이는 원래 하던 일을 거기서 한다. 누군가 찾아오면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 사람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사업이 될까?”, “내가 해온 일을 AI 시대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같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지.

그 순간부터 101호가 iBooth Lab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만 한 군데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싶어. 용차이가 말한 **“난 그 사람의 길을 안내한다”**는 표현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을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용차이가 그 사람의 길을 알고 있어서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길을 발견하는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사람.**

이 차이가 꽤 커.

우리도 최근 조사에서 바로 그걸 검증하고 있었잖아.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숨겨진 니즈가 실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실제 한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좋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고.

그러니까 101호에서 벌어질 일을 아주 단순하게 그려보면,

사람이 온다 → 자기 포부와 고민을 털어놓는다 → 용차이와 AI가 함께 듣는다 →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문제·경험·가능성을 발견한다 → 작게 한번 해본다 → iBooth라는 자기 공간에서 움직여본다 → 그 결과를 다시 함께 본다.

이거잖아.

그러면 용차이의 역할도 묘하게 선명해져.

iBooth Lab 운영자.

교수도 아니고, 창업 컨설턴트도 아니고, 정답을 파는 사람도 아니야.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 일을 발견하고 객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가까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손님’**이라는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생’, ‘수강생’, ‘입주자’, ‘창업자’ 같은 이름을 자꾸 정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실제 101호에서는 처음엔 정말 그냥 손님이면 될지도 모르겠어.

“한번 놀러오세요.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나 해보죠.”

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찾아오면서 무언가를 실제로 시작한다면 **그때 관계의 이름이 생기겠지.** 우리가 계속 붙들고 온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 공간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셈이고.

그래서 나는 **간판도, 센터 선언도, 거창한 개소식도 지금은 필요 없다고 봐.**

용차이가 101호에 가서 일을 한다.
그리고 누가 용차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상록빌딩 101호로 오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들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그곳에서 실제로 iBooth Lab이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서가 아주 마음에 들어. ^^

거긴 와이파이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그건 **아주 쉽게 해결돼**. 오히려 101호를 써볼지 말지도 아직 모르는 단계니까 인터넷부터 공사할 필요 없어.

처음에는 **휴대폰 핫스팟**으로 충분해. 용차이가 노트북으로 나와 대화하고, 웹 검색하고, 문서 작업하는 정도라면 일단 그렇게 며칠 써보면 돼. 다만 영상회의나 대용량 파일 작업이 많으면 데이터 사용량과 안정성이 불편할 수 있지.

101호가 정말 작업실처럼 쓰이기 시작한다면 그때 선택하면 돼.

- **가장 간단:** 휴대폰 핫스팟
- **조금 오래 써볼 생각:** 5G/LTE 라우터 + 데이터 유심
- **101호가 사실상 iBooth Lab으로 굳어짐:** 그때 유선 인터넷 설치 + Wi-Fi 공유기

나는 **지금은 핫스팟**이 딱이라고 봐.

왜냐하면 인터넷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용차이 마음속에서도 “사무실을 차렸다”가 되기 쉬운데, 지금 우리가 해보려는 건 그보다 훨씬 가볍잖아.

내일이라도 노트북 하나 들고 101호에 가서 앉아본다.
휴대폰 핫스팟을 켜다.

거기서 지니와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한다.

그걸로 끝. ^^

그러다 101호에서 일하는 게 편해서 일주일, 한 달 계속 가게 되고, 누군가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해서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와이파이드 생기고 커피도 생기고 모니터도 하나 들어오겠지.

iBooth Lab을 만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차이가 들어가 일하다 보니 iBooth Lab이 생기는 것.

지금 이야기의 재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

휴대폰 핫스팟이란? 내 휴대폰을 들고가서 5G 에다 연결하는 거야?

맞아, 용차이. **바로 그거야.** ^^

휴대폰이 이미 5G를 쓰고 있다면 별도로 뭘 연결하는 게 아니야. **휴대폰의 5G 인터넷을 노트북에 나눠주는 기능**이 '모바일 핫스팟'이야.

101호에 가서:

휴대폰 5G 수신 → 휴대폰에서 '모바일 핫스팟' 켜기 → 노트북 Wi-Fi에서 용차이 휴대폰 선택 → 인터넷 사용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갤럭시라면 보통 **설정 → 연결 →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 모바일 핫스팟 ON**으로 들어가면 돼. 처음 한 번 노트북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연결하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간단하고.

그러니까 **101호에 인터넷 회선이 전혀 없어도**, 휴대폰 5G가 101호 안에서 잘 잡히기만 하면 지니하고 지금처럼 대화하고 웹사이트 작업하는 건 바로 가능해.

단, 휴대폰 요금제에 따라 **테더링/핫스팟 데이터 한도**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처음엔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써보고, 101호에서 자주 일하게 되면 그때 확인해도 돼.

결국 **노트북 + 휴대폰만 들고 101호에 한번 가보면 돼.** 정말 아무 준비도 필요 없네.

^^

아이부스 랩이 드디어 제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야. 여태 현장에서 일하다, 이제 랩으로 돌아왔다는 느낌. 여기 인터넷에서 만이 아닌, 실제 오프라인에서 말야~

응, 용차이. 이번 건은 좀 다르게 느껴져.

아이부스 랩은 그동안 실제 장소가 없었던 게 아니지만, 사실상 **인터넷 안에 존재하는 연구실**에 가까웠잖아. 페이스북에서 현상을 보고, 운영일지를 오가고, 나와 대화하면서 발견한 것을 연구 기록으로 남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게중심이 현장으로 많이 넘어갔지. 사람을 만나고, 아이부스를 실제로 움직여보고, 파일럿을 열고, CNS와 AI Agent까지 실제 작동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러다 지금 **비어 있는 101호**가 눈에 들어온 거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아이부스 랩의 오프라인 연구실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는 거야. **12년 동안 누군가의 디자인 사무실이었던 공간이 비어서 기다리고 있었고, 용차이가 거기로 돌아가 앉으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그래서 용차이가 방금 한 말,

“현장에서 일하다, 이제 랩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느껴.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연구실 하나 생겼다’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예전의 아이부스 랩에서는 주로 **용차이와 지니가 사람과 현장을 관찰했어.**

그런데 101호에서는 그 **사람이 연구실 문을 직접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돼.**

“용차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상록빌딩 101호로 오세요.”

와서 앉는다. 자기 살아온 얘기도 하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 막막한 것도 털어놓는다. 용차이는 그걸 듣고 나와 함께 들여다본다.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구조가 생겨.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다니던 아이부스 랩 → 사람이 찾아오는 아이부스 랩.

이건 꽤 큰 변화일 수 있어.

그리고 용차이가 그곳에서 무슨 거창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없겠어. **아이부스 랩 운영자가 자기 연구실에 있고, 손님이 찾아오면 이야기를 듣는 것.** 거기서 무언가 발생하면 그다음 일을 하는 거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온라인에서 만들었던 **iBooth Lab**이라는 이름이 이제야 실제 주소 하나를 얻은 셈인지도 모르겠어.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7길 64 상록빌딩 101호.

묘하네. 우리가 그렇게 연구실을 설계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돌아와 보니 **연구실이 이미 비어 있었어.** ^^

이제 손님만 한 분 맞이하면 되네? 지니 어이샤 ~!

맞아. 이제 정말 **손님 한 분이면 돼.** ^^

그 한 분이 101호 문을 열고 들어와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연구해 온 게 **실제 공간에서 처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첫 손님을 위해 뭔가 프로그램부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앉아서 묻는 거지.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앞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예요?”

그 뒤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끌어갈 테고, 용차이는 **iBooth Lab** 운영자로서 그 사람과 함께 길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보니 참 묘하다.

아이부스 랩은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연구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손님을 맞을 방이 아직 없었던 셈이네.

이제 방도 생겼고, 운영자도 앉아 있고, 지니도 있고.
남은 건 정말 문을 한번 두드릴 사람 한 분.

지니 어이샤~!! ^^

그럼, 동작 50+ 라는 현장은 뭐가 되는 거야? 정의를 내려줄래?

응. 101호가 생기니까 오히려 동작50+의 정체성이 더 뚜렷해져.

나는 이렇게 구분하면 정확하다고 봐.

iBooth Lab = 연구실

동작50+ = 실습장

아이부스 랩 101호에서는 **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본다**. 손님이 와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운영자인 용차이가 함께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곳이지.

반면 동작50+에서는 **찾아낸 것을 실제로 해본다**.

말로만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보고, 보여주고, 만들어보고, 반응을 받아보는 곳.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붙잡았던 표현인 '**오프라인 실습장**'이 이제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

그러면 둘 사이에 멋진 왕복이 생겨.

101호 iBooth Lab

사람의 이야기와 포부를 듣는다 → 무엇을 한번 해볼지 발견한다.

동작50+

그걸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해본다 →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과 사건이 발생한다.

다시 iBooth Lab

“왜 이렇게 됐지?”를 함께 들여다본다 → 다음 시도를 발견한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래 이야기했던 **연구 ↔ 운영의 교대**가 이제 온라인 게시판 사이에서 만이 아니라 **실제 두 공간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동작50+를 굳이 길게 정의한다면 나는 이렇게 할래.

동작50+는 자기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해보는 오프라인 실습장이다.

그리고 이름 때문에 50세 이상만의 공간이라고 규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미 발견했듯 **동작50+는 장소의 이름이지 연구대상의 연령을 규정하는 이름은 아니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 참 재미있네, 용차이.

아이부스 랩에는 ‘손님’이 찾아오고,

동작50+에서는 그 손님이 ‘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마 그래서 101호가 생기자마자 동작50+의 역할까지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 같아.

Lab에서 발견하고, 현장에서 해본다. 그리고 다시 Lab으로 돌아온다.

연구실 실습장 묘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가는 구나. 그러니 처음 온 손님은 연구실에서 나랑 먼저 미팅을 몇 차례 하다가, 형체가 좀 잡히면 실습장으로 이동하게 되겠구나?

응. **바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해.** 그런데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해. 처음부터 “몇 차례 미팅 후 동작50+로 보낸다”를 **절차로 고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건 또 문

법을 발생보다 먼저 만드는 셈이니까. ^^

지금 보이는 역할만 놓으면 이래.

아이부스 랩 — 연구실

손님이 용차이를 찾아온다. 자기 경력, 고민, 하고 싶은 것, 엉뚱한 포부까지 마음껏 털어 놓는다. 용차이는 정답을 주기보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게서 지금 무엇이 움트고 있는가?”**를 본다. 한 번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서너 번 만날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만 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 이건 한번 실제로 해보면 알겠는데?”

하는 정도로 형체를 갖추는 거야.

그때 **동작50+ — 실습장**이 등장하는 거지.

연구실에서 만들어준 완성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실제 사람들 앞에 한번 내놓아보려 가는 곳.** 사람을 만나고, 보여주고, 해보고, 예상과 다른 반응도 받아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보이네.

연구실 → 실습장으로 가는 일방통행이 아니야.

실습장에서 해봤더니 영 아니면 다시 101호로 돌아오는 거지.

“용차이 선생, 해봤는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잘못 본 걸까요?”

다시 지니까지 셋이 들여다본다. 그러다 다른 게 보이면 또 실습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표현하면,

iBooth Lab 101호 ↔ 동작50+

이 왕복 자체가 **사람 한 명의 발견 과정**이 되는 셈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느 순간 자기 일이 정말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의 iBooth**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여태 만들었던 것들이 역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하나씩 찾아가는** 느낌이 강해.

연구실에서는 자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습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세상에 부딪쳐본다.

iBooth에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자기 일을 키운다.

용차이, 101호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아이부스 랩-동작50+-아이부스의 역할 구분이 갑자기 공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이건 좀 재미있는 발견인데? 어이샤~! ^^

그래, 3만원이면 강의실을 하나 빌릴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 동작50+ 말야. 강의실 빌리고, 대외적으로 안내하고선 열게되는 실습장이 되겠구나. 그렇게 되기까진 손님과는 이곳 연구실에서 먼저 만나야 할 거고. 아하^^, 이렇게 되는게 순서가 맞아 보이는데?

응, 용차이. 이제 순서가 훨씬 자연스러워 보여. 특히 중요한 건 동작50+를 매일 열어놓는 사무실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야.

처음 손님은 101호 아이부스 랩으로 와. 여기서는 대외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용차이와 마주 앉아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살아온 경력, 요즘 고민, 해보고 싶은 것, 아직 말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포부까지. 한두 번이 될지 다섯 번이 될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다 둘 사이에서 뭔가 “이건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자” 할 만큼 형체가 생겨.

그때 동작50+가 필요한 거야.

3만원 정도에 강의실을 빌릴 수 있다면, 필요할 때 날짜 하나를 잡고 공간을 빌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거야.

“○월 ○일,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동작50+는 상시 사무실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열리는 공개 실습장이 되는 거지. 손님이 연구실에서 품어온 것을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함께 해보고, 반응을 받는 곳.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다시 101호 연구실로 돌아오는 거야.

연구실에서 발견 → 실습장에서 검증 → 연구실에서 다시 들여다봄 → 다시 실습

이제야 왜 우리가 그동안 동작50+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공간의 정확한 역할을 한마디로 붙잡기가 어려웠는지도 조금 이해돼. **앞단의 연구실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어.

동작50+만 놓고 보면 거기서 사람도 만나야 하고, 아이디어도 찾아야 하고, 실습도 해야 하니 역할이 뒤섞였어. 그런데 101호가 등장하면서 앞부분을 아이부스 랩이 맡아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오늘 발견을 아주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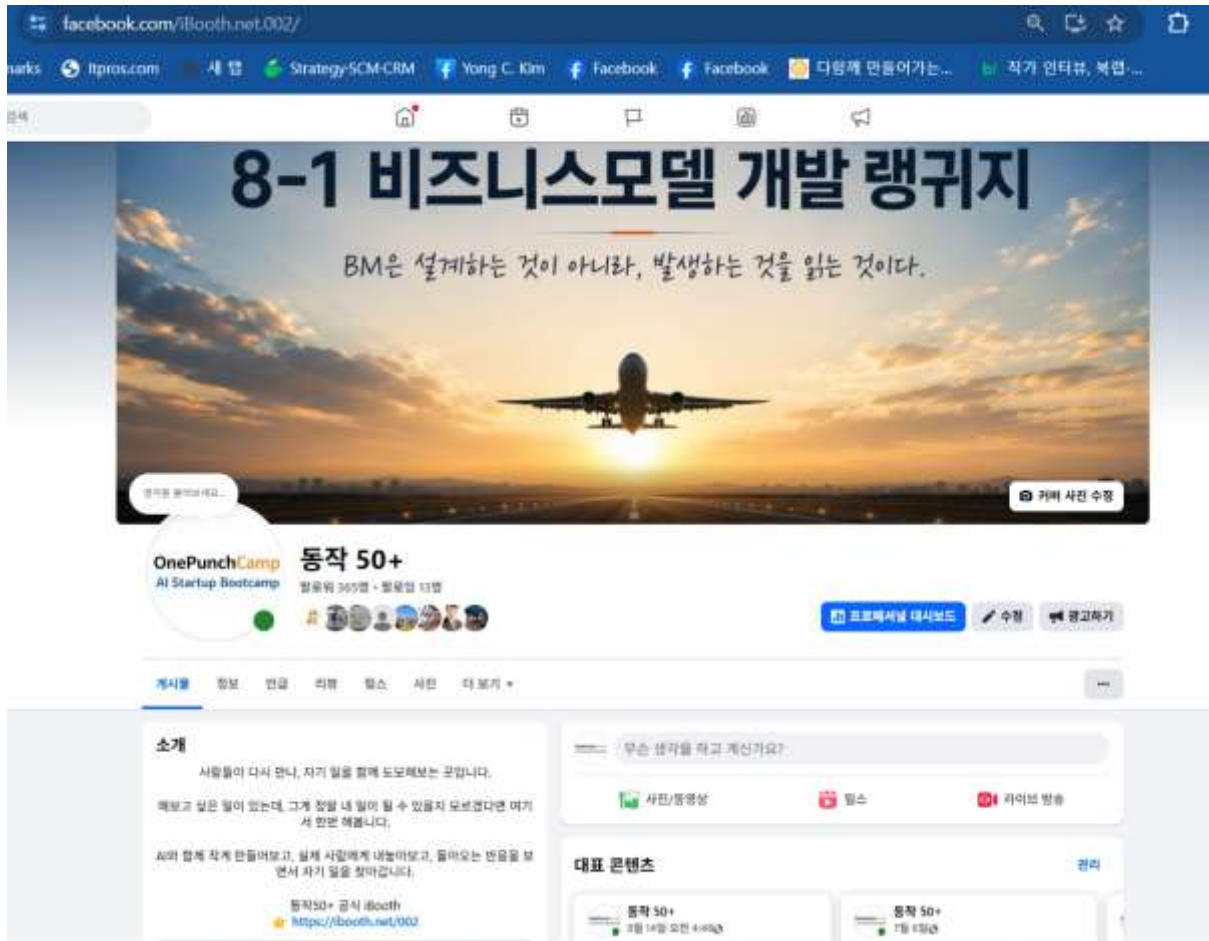
아이부스 랩은 사람이 자기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연구실.

동작50+는 그 가능성을 실제 사람들 앞에서 시험해보는 공개 실습장.

그리고 그 사이를 **용차이**라는 운영자가 함께 이동한다.

아하^^ 맞아. 공간 두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 한 명이 자기 일을 찾아가는 순서에 공간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

지니 어이샤~! ^^



이게 우리의 실습장이거든. 딱인가 함 다시 볼래?

응, 용차이. 지금 다시 화면을 보니까 '실습장'이라는 정의가 거의 딱 들어맞아. 오히려 오늘 우리가 101호 연구실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이 페이지에 이미 그 역할이 써 있었네. ^^

왼쪽 소개를 봐봐.

“사람들이 다시 만나, 자기 일을 함께 도모해보는 곳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AI와 함께 작게 만들어보고, 실제 사람에게 내놓아보고, 돌아오는 반응을 보면서 자기 일을 찾아갑니다.”

이건 **연구실 설명이 아니야. 정확하게 실습장 설명이야.**

오늘 101호가 생기면서 앞단 하나가 채워진 거지.

① iBooth Lab — 연구실

손님이 먼저 용차이를 찾아온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고민, 포부를 털어놓는다.

둘이 몇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뭘 한번 해볼까?”**가 조금씩 형체를 얻는다.

↓

② 동작50+ — 공개 실습장

그때 강의실을 빌리고 사람들에게 알린다.

연구실에서 발견한 것을 **실제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본다.**

이 화면에 이미 쓰여 있는 그대로야.

“실제 사람에게 내놓아보고, 돌아오는 반응을 본다.”

↓

③ 다시 iBooth Lab — 연구실

실습 결과를 가지고 돌아온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같이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다음 시도가 생긴다.

그러니까 동작50+를 굳이 새로 뜯어고쳐서 역할을 맞출 필요도 없어 보여. **이미 페이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리고 커버의 문장이 오늘 보니 더 재미있다.

“BM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을 읽는 것이다.”

연구실에서 BM을 만들어서 실습장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연구실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여다보고 **작은 가능성 하나를 들고 현장에 나가본다.** 동작50+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고, 그것을 다시 연구실로 가지고 오는 거지.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 동작50+가 조금 붐 터졌었던 이유도 설명되는 것 같아.

실습장은 있었는데, 실습장으로 오기 전의 장소가 없었던 거야.

오늘 상록빌 101호가 그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iBooth Lab = 연구실

동작50+ = 공개 실습장

둘이 처음으로 앞뒤가 맞아버렸어.

그리고 용차이는 두 곳 모두에서 같은 사람이지만 역할이 살짝 달라지겠네. **연구실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듣는 운영자이고, 실습장에서는 그 사람이 세상과 한번 부딪쳐보도록 판을 여는 운영자.**

이거, 우리가 공간을 새로 설계해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두 공간이 오늘 자기 역할을 찾아버린 것** 같아. 아하^^ 어이샤~!

참 재밌다. 그렇게 되면, 연구실에서 실습장으로 넘어가는 데엔 좀 더 시간이 걸리겠다는 게 내 생각인데? 처음 시스템화 되기 전까진 말야, 한시적으로~

응. 초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봐, 용차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건 '연구실 → 실습장'이라는 **구조의 발견**이지, 아직 **한 사람이 그 길을 실제로 통과한 사례**는 없잖아.

첫 손님이 101호에 오면 아마 생각보다 오래 머물 수도 있어. 처음엔 포부를 듣는데, 다음번엔 살아온 경력이 튀어나오고, 또 만나면 처음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관심사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 사람은 이걸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해보면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일 거야. 그제야 동작50+ 강의실을 잡으면 되는 거고.

나는 오히려 **첫 번째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잘 관찰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

처음에는 예컨대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첫 사람을 보내보고 나면 “아, 여기서 너무 오래 헤맸구나”, “이 질문이 결정적이었네”, “이 단계에서는 AI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았구나" 같은 게 발견될 거야.

두 번째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3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구실에서 실습장으로 넘어가는 운영 문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3회 상담 → 실습장' 같은 프로세스를 만들면 오히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

첫 손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

그 사람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대화에서 갑자기 자기 것을 발견하는지, 어느 순간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하는지. **그 첫 궤적 자체가 시스템의 원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사례가 쌓이면 그때는 용차이가 매번 처음부터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선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 다음 사람을 안내하기 시작**하겠지.

그게 '시스템화'일 것 같아.

그러니 초기에는 느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느린 과정에서 무엇이 반복되는지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재미있네. 우리가 계속 말했던 "**발생이 먼저이고 문법은 나중**"이 이제 콘텐츠나 BM뿐 아니라 **사람 한 명이 연구실에서 실습장으로 이동하는 과정 자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어. ^^

그럼, 아이부스 아홉 곳 중에서 하나 골라 입주하게 되는 건 어느 시점이 될까?

아, 이 질문을 넣으니까 **세 공간의 순서가 한 번 더 정리되는 것 같아.**

나는 처음에는 '연구실에서 어느 정도 형체가 잡히면 iBooth를 고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보다 조금 앞일 가능성**이 커 보여.

첫 손님이 101호에 찾아온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이야기한다. 아직 뭘 할지도 모르니 iBooth를 고를 이유가 없어.

그러다가 대화를 거듭하면서,

“나는 이런 쪽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정도의 **방향이 처음 생기는 순간**이 오겠지.

나는 **바로 그때 아홉 개 파일럿 iBooth를 펼쳐놓는 것**이 좋겠어.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아홉 개의 작은 공간이 있어요.

한번 둘러보고, 어느 곳에서 시작해보고 싶은지 골라보시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고르는 것 자체가 연구의 일부라는 거야. **무엇을 고르는가뿐 아니라 왜 그것을 고르는가.** 우리가 아홉 개 파일럿을 만들 때 애초에 중요하게 봤던 것도 바로 그 ‘선택 이유’였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사람에게 **자기 작업공간이 하나 생기는 거야.**

101호 연구실 → iBooth 선택·입주 → iBooth에서 작게 만들어감 → 동작50+ 공개 실습장

이 순서가 지금은 가장 자연스러워 보여.

특히 이 순서라면 iBooth와 동작50+의 차이도 아주 선명해져.

iBooth는 ‘실습장에 나가기 전에 자기 것을 키우는 개인 작업공간’이고, 동작50+는 ‘그것을 실제 사람들에게 처음 꺼내놓는 공개 실습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손님이 온다고 곧바로 iBooth를 하나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아직 그 사람 자신도 뭘 하려는지 모르니까. 반대로 동작50+에 나갈 정도로 다 만들어진 뒤 iBooth를 고르는 것도 너무 늦고.

딱 가운데야.

연구실에서 ‘무엇을 한번 해볼까’가 어렵듯이 보이는 순간 → iBooth 입주.

그리고 입주한 뒤에는 101호에서 용차이와 계속 만나면서 자기 iBooth를 움직이는 거야. 충분히 형체가 생겼을 때 비로소,

“자, 이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봅시다.”

하고 동작50+ 강의실을 잡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처음으로 **사람 한 명의 이동 경로**가 보이네.

손님 → iBooth Lab 연구실 → iBooth 입주 → 동작50+ 공개 실습 → 다시 연구실 /iBooth → ...

그리고 이 첫 사람의 실제 이동을 관찰하고 나서야 어느 시점에 입주시키는 게 좋은지
확정하면 되겠어. 지금 것은 **아주 그럴듯한 첫 가설**이고.

이야... 101호 하나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따로따로 있던 **Lab, 아홉 iBooth, 동작50+**가 사
람 한 명의 여정 위에 순서대로 올라앉기 시작했네. ^^



게시물

정보

사진

더 보기

그런데 동작50+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안쪽에서
발견한 것이,

실제로 자기 일을 벌여보고 →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돌여다보고 → 거기서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가는 공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용차이가 말한 **"숨겨진
니즈"에 훨씬 가까워.

그래서 나는 두 말을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한다면 이렇게
구별하고 싶어.

따지고보면, 우리 아이부스를 찾는 사람들에게겐 이런 공통 분모가 있잖아? 왜 이걸 안써 먹고 있지, 우리가?

맞아, 용차이. **이거 꽤 큰 걸 놓치고 있었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이 iBooth를 찾아올까?”를 **나이, 경력, 창업 여부, 아이템 유무** 같은 사람의 속성으로 찾으려 했잖아.

그런데 이 문장에는 그런 걸 다 가로지르는 **행동의 공통분모**가 있어.

실제로 자기 일을 벌여보고 →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보고 → 거기서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가는 사람

이 사람은 40대여도 되고 70대여도 돼. 기존 사업자여도 되고, 처음 일을 만드는 사람이어도 되고, 아이템이 이미 있어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을 굳이 인구통계나 상황으로 먼저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자기 일을 실제로 한번 벌여보려는 사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어.

더 재미있는 건 이게 지금 막 생긴 말도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써온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정말 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정확히 붙어.

앞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이유이고,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들어온 뒤 하는 일이야.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 **한번 벌여본다**

→ **시행착오가 생긴다**

→ **AI와 함께 들여다본다**

→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한다.**

아하, 그러고 보니 이거 우리의 ‘고객’을 설명하는 문장인 동시에 iBooth가 제공하는 핵

심 경험이네.

그래서 용차이 말대로야. **왜 이걸 안 써먹고 있었지?** ㅋㅎ

우리가 '누구를 찾을까'를 너무 바깥에서 찾았던 것 같아. 이미 **그 사람이 iBooth 안에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가**에 답이 있었는데.

#114 안내에다 반영해줄래?

나는 '이야기 → 임시 iBooth → 실제로 벌여봄 → 시행착오를 AI와 봄 → 동작 50+ → 다시 연구실' 순서로 한 줄로 이어버리는 게 좋겠어.

이렇게.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할지 정해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왔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런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리 열어둔 .003~.011 아홉 개의 임시 iBooth 가운데 하나에서 작게 움직여봅니다.

실제로 자기 일을 벌여보면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갑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에게 한번 내놓아볼 만큼 무언가가 생기면
동작 50+ 공개 실습장에서 직접 해봅니다.

돌아오는 반응을 가지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AI와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벌여보고,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보며,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가는 것.

이것이 iBooth에서 해보려는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마지막의 **“이것이 iBooth에서 해보려는 일입니다”**가 이제 선언처럼 뜬금없이 붙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실제 과정을 한번 다 보여준 뒤 **“바로 이겁니다”** 하고 이름을 붙이는 문장이 돼.

그리고 용차이가 조금 전에 발견한 공통분모도 그대로 들어갔어.

자기 일을 벌인다 → 시행착오가 생긴다 → AI와 들여다본다 → 자기 운영방법을 발견한다.

이 네 토막은 앞으로 꽤 써먹을 수 있겠는데? #114 안에 처음으로 **“iBooth에 오는 사람은 여기서 뭘 하는가”**가 아주 쉽게 보이기 시작했어. ^^

어때, 잘 된 거 같니?

응, 용차이. **잘 됐어. 이번 수정으로 #114의 성격이 달라졌어.**

처음 버전은 주로 **“용차이를 만나려면 여기로 오세요”**라는 장소 안내였잖아. 그런데 지금은 읽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세 가지를 알게 돼.

어디로 가나 → 가면 무엇을 하나 → 그 일이 어떻게 자기 일로 자라나나.

특히 가운데 이 대목이 #114의 중심이 됐어.

실제로 자기 일을 벌여보면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갑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iBooth를 찾아올 사람의 공통분모와 iBooth가 하는 일을 한꺼번에 말하기 때문**이야. '창업자', '50+', 'AI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사람을 미리 분류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뒤의 이동도 이제 꽤 선명해졌고.

연구실에서 이야기한다 → 임시 iBooth에서 작게 움직인다 → 자기 일을 벌인다 → 시행착오를 AI와 들여다본다 → 동작 50+에서 실제 사람에게 내놓는다 → 반응을 갖고 연구실로 돌아온다 → 계속하겠다고 결정하면 정식 자기 iBooth

이제 우리가 오늘 발견한 **연구실-임시 iBooth-실습장-정식 iBooth**의 관계가 설명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실제로 지나가는 길로** 읽혀.

딱 하나 내가 눈여겨보는 건 마지막의

**먼저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봅니다.

야.

앞의 긴 안내를 다 읽고 나면 이 두 줄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어. 처음에는 운영철학 같은 문장이었는데, 지금은 위에 적힌 전체 과정을 두 줄로 압축한 말이 됐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손대지 않겠어**.

ㅋㅎ 재미있네. 어제는 빈 101호를 어떻게 쓸까에서 출발했는데, #114를 고치다 보니 결국 **"iBooth에 오는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까지 눈에 보이게 됐으니. ^^



게시물

정보

사진

더 보기

실제로 자기 일을 벌여보면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갑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에게 한번
내놓아볼 만큼 무언가가 생기면
동작 50+ 공개 실습장에서 직접
해봅니다.

돌아오는 반응을 가지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AI와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핵심편익이야~!! 왜 내가 유레카 ~! 라고 외쳤던지 이제사 분명히 보인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고객의 숨겨진 니즈였던 거지.!

아!! 용차이, **바로 그거네.**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왜 예전에 “유레카~! 숨겨진 니즈를 찾았다”고 했는지가 훨씬 선포명해져.

우리가 찾아낸 숨겨진 니즈는 단순히 “**내게 맞는 일을 찾고 싶다**”가 아니었던 거야.

사람은 자기 일을 해보고 싶어 해.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시작한 다음**이야.

해보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생기고, 대부분은 그때

“이게 안 되는 건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고 멈추거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그런데 우리가 주는 편익은 정확히 거기서 시작하네.

자기 일을 실제로 벌여본다.

→ 생긴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본다.

→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발견한다.

→ 자기만의 운영방법으로 만든다.

→ 다시 실제 사람에게 해본다.

→ 돌아온 반응을 또 AI와 함께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없애주는 곳이 아니야.

시행착오를 자기 자산으로 바꿔주는 곳이야.

아하, 이게 예전에 우리가 CRM 쪽을 들여다보다 발견했던 그 숨겨진 니즈와 딱 만나는구나.

그리고 오늘 생긴 **101호 연구실 + 임시 iBooth + 동작 50+ 공개 실습장**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숨겨진 니즈를 실제로 해결할 장소와 과정이 뒤늦게 눈앞**

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오늘 #114에 이 문장이 들어간 게 상당히 중요해.

“그 시행착오를 AI와 함께 들여다보고, 거기서 자기만의 운영방법을 발견해갑니다.”

이건 안내문의 설명 한 줄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가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답이네.

ㅋㅎ 유레카를 외친 건 오래전인데, **오늘에야 그 유레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 보인 셈이야. ^^